

한득수표 디테일 행정 시동 ‘민생·경제 행보’ 시동

임실군, 예산 1조 시대 실현 큰아젠다속 ‘군민 주권·군민 우선 행정 실현’ 집중

새로운 임실군정을 이끌 한득수 신임 군수가 내세운 ‘임실예산 1조원 시대 실현’이라는 큰 아젠다에, 군민 눈높이를 맞추는 ‘한득수표 디테일’ 행정을 예고하면서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군수가 강조하는 임실군정의 운영의 틀은 “예산 1조원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포부 속에 ‘군민 주권의 군민 우선의 행정 실현’이라는 주민을 최우선하는 행정력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군민주권의 군민우선 행정실현은 한 군수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담아내어 ‘순돌 밑가시’를 제거하겠다’는 디테일 행정으로 수렴되고 있다.

한득수표 디테일 행정은 취임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감히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탈권위주의 행정의 일환으로 읍면장실을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1층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역시 강력한 디테일



행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위한 1차 의료기반시설 확충을 약속하며, 군민들의 건강주권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 군수의 1호 결재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다. 그는 선거 기간내내 모든 군민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주창했고, 주민들은 그 약속에 크게 호응했다.

큰 호응에 답하듯, 그는 1호 결재로 올 하반기에 전 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택했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소멸 대응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군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비추고 있다.

민선9기 임실군정의 방향과 목표는 그 윤곽을 드러냈다.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요로운 농촌경제, △감동있는 문화관광, △살맛나는 교육복지, △군민우선 열린행정은 4대 군정방침이 그것이다.

“집권여당 군수로서 예산 1조원 시대 실현하겠다” 거대한 비전 속에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이동장연수원 건립 사업 및 KTX임실역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사업, 옥정호 순환도로 연결을 위해 1천억 규모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득수 군수는 “군민들의 세밀한 목소를 경청하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며 “분초를 아끼지 않고, 마치도록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장류축제 해외 홍보·관광객 유치 본격화

순창군, 대만 여행사 초청 팸투어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이 대만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며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홍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섰다.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만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순창장류축제를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



고 전주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대만 주요 여행사 대표와 상품기획 담당자 등 30여 명은 강천산국립공원과 강천힐링스과 등 순창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고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발효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열린

‘2026 예비글로벌축제 순창장류축제 홍보설명회’에서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과 외국인 참여형 콘텐츠, 발효문화 체험 및 미식관광 지원을 소개하고 대만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대만 여행업체 관계자들은 장류문화와 발효음식, 체험 중심 관광콘텐츠가 대만 관광객의 여행 수요와 잘 맞는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직접 만들고 맛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관광지·공공시설에 반려동물 편의용품 배치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반려동물 친화 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에 반려동물 편의용품을 배치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와 함께 추진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임실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임실군청, 오수 반려누리(반려

동물 지원센터),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봉어섬, 오수 올레카페, 전북119 안전체험관 등 총 6개소에 반려동물 편의용품 5종, 31개를 배치했다.

배치된 편의용품은 반려동물 유모차를 비롯해 반려동물 전용의자, 이동가방 등으로 각 시설의 이용 특성과 관광 수요를 고려해 장소별로 품목을 달리 구성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1호 결재’로 1000억 규모 추경 편성

양충모 남원시장이 민선 9기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2026년 제3회 추경결정예산 편성 계획’을 1호 결재하며 ‘시민주권 시대’와 ‘경제도시 남원’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양 시장이 ‘1호 결재’로 추경 예산 편성을 선택한 것은, 정채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예산’으로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이다. 아울러 핵심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남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남원시는 정부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교부세 337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가용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듯 절감된 재원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농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맞는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와 저수지 안전 강화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을 우선 반영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이상 기후 피해복구,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농가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조성,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대산면·아영면 청년농촌보급지구 조성, 전북형 반팔주택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8월 24일 개최되는 제28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니어클럽 ‘어르신 자서전 사업’, 문화복지 활력

남원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6년도 시범 사업으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어르신 자서전 사업’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복지 활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올해 초 어르신 인생 이야기 자서전 작가 4명을 선발하고 한 달간의 전문 교육을 마쳤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자서전 주인공이 될 대상자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서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적인 인생 여정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년고



도 문화자원 발굴형 어르신 자서전 사업’이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문화복지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년고도 남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인터뷰를 통해 점차 사라져가거나 소멸해 가는 구전자료의 실체를 자서전에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하반기 훈몽제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훈몽제에서 2026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연중 수시로 운영되며 하반기 과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전문 교육반과 훈몽제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비문화, 훈몽제 교양강좌 등 3개 과정으로 운

영된다. 유학전문 교육반은 한문학과 전공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학과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가족과 단체를 위한 ‘훈몽제에서 만나는 조선의 선비문화’는 과거 선비들이 익혔던 육예(예법·음악·말타기·활쏘기·글쓰기·셈하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장마철 대비 주요 도로·배수로 정비 총력

임실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도로와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와 교통 불편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 주요도로와 배수구, 배수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배수구 및 배수로 내 퇴적토와 각종 이물질 제거를 통한 원활한 배수 기능 확보, 도로 균열 및 파손 구간 보수,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등이다.

군은 장마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기 저상버스 5대 추가 도입

남원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저상버스 4대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5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도입되는 전기 저상버스는 차체의 바닥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동반 승객,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낮은 차체와 적은 소음·진동 등 쾌적한 탑승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느끼는 ‘체감형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교체 계획도 함께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는 연차별로 순차 도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